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지지 호소…투표 참여 독려

각 정당 오전 출근인사부터 자정까지 "한표라도 더" 총력

교차로·상가·복지관 등 찾아…촛불 집회로 마지막 유세도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른 오전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자정까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후보(광주 동남갑)는 이날 오전 백운동 로터리 출근 인사로 시작해 낮에는 지역 순회 인사와 연설, 오후엔 백운동 로타리에서 최종 유세를 마친 뒤 상가 방문 인사를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정 후보는 순회 연설에서 "투표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안도걸 후보(동남을)는 골목 릴레이 유세를 펼쳤다. 이날 오후 8시엔 5·18민주광장 분수대 앞에서 모든 선거운동원이 집결한 가운데 촛불 집중 유세를 펼쳤다.

조인철 후보(서구갑)는 5·18기념회관 사거리에서 유세를 마친 뒤 자정까지 치평동 상가투어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양부남 후보(서구을)는 염주사거리에서 출근 유세, 풍금사거리에서 총력 유세를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마쳤다.

정준호 후보(북구갑)는 오전 5시30분 북구 시설관리공단 방문을 시작으로 노인대학 개강식, 복지관 방문, 경로당 방문, 상가 투어, 무등도서관 사거리 집중 유세까지 쉴 틈 없는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전진숙 후보(북구을)는 출근 인사와 저녁 인사, 용봉동 농협 삼거리 최종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박균택 후보(광산갑)는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광산구청 사거리 집중유세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민형배 후보(광산을)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창우체국 사거리와 수완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가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왼쪽)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가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동남갑)는 오전 진월동 시티병원 앞 출근인사를 마치고 진월동과 효천지구, 봉선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두 연설을 펼치며 지지를 부탁했다. 박은식 후보(동남을)는 오후 8시 산수마당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치며 한 표를 호소했다.

하헌식(서구갑)·김윤(서구을)·김정명(북구갑)·양종아(북구을)·김정현(광산갑) 후보는 각자의 지역구에서 아침인사와 유세, 퇴근길 인사로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끝냈다. 광산을 안태욱 후보는 종일 수완지구와 첨단지구, 신창지구 등에서 차량 가두 유세를 펼쳤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서구을)도 이날 오전 4시30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배식 봉사, 유세차 이동 유세, 식당가 인사 등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으로 쉬지 않고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강 후보는 이보라미·문정은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운천저수지 일대에서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위해 녹색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광산을)는 출근 인사와 집중 유세에 이어, 오후 7시에는 첨단 쌍암공원 사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친 뒤 8시부턴 쌍암공원 바닥분수에서 촛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적의 1석'을 호소하고 있는 진보당 윤민호 후보(북구을)는 오전 4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작된 쓰레기 줍기를 하며 유권자들에게 "꼭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후보들도 광주 금남로와 풍암동 등에서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 공정한 출발선을 지키는 정치를 할 젊은 피에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나무당은 구속 중인 송영길 후보(서구갑)를 대신해 자녀 주환·현주씨와 노영희·변희재 비례대표 후보가 이른 새벽부터 양동시장과 기아차 공장 앞 등에서 선거운동을 펼쳤다. /박선강 기자

"광주의 선택, 정치적 변화 출발"

조국, 충장로서 비례후보들과 함께 막판 '세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의 이번 광주 방문은 올해 들어 네번째다. 지난 2월14일 망월동 국립묘지, 3월14일 충장로, 3월30일 풍암호수공원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비례후보들과 함께 마지막 선거운동를 펼쳤다.

조 대표는 "한 달 갓 넘은 신생 정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신 것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무능함·무책임함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결기와 결의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창당 후 첫 지역 일정, 총선 전 마지막 지역 유세 일정으로 광주를 택한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출발점이자 저와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모든 출발이 바로 광주"라며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했을때 제 생각으로는 광주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광주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적 변화의 출발이었다"며 "4월10일 광주시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고 겸허히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입성할 경우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와 관련, 조 대표는 "창당 선언한 이후부터 계속 유사한 질문을 하신다. 합당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답을 드렸다"며 "검찰 개혁, 기재부 개혁, 과학기술 정책, 기후 문제 등 정강 정책에 있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많아 원래 추구하려던 목표가 묶어지고 옅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민주당과 항상 협력해야 하겠지만 우리도, 민주당도 개혁적이고 민생 중심의 법안 통과를 위해 하나 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하므로 합당하지 않는 것이 서로 좋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우리가 민주당 형제정당"

"정치연합·정권교체 함께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9일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 폭정을 제대로 심판할 유일한 형제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서미화·전종덕·김윤·강경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주도하고 원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정치 협상을 거쳐 탄생시킨 비례연합정당으로서 진보 진영의 폭넓은 지지와 연합의 힘은 단순한 선거 연합에 그치지 않고 정치 연합, 정권교체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돼야 국회의장을 포함 상임위 운영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윤석열 행정부를 견제하고 무너진 민생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군소정당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일사분란하게 개혁을 추진할 안정적인 다수 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연합은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비전과 정책을 함께 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망친 민생·민주·미래·평화를 모두 회복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민주연합 후보 30명은 모두 현장형 실천 전문가다. 민주당 추천 당선자들은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으로 복귀해 민주당과 일심동체로 입법권을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연합은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야무지게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투표해 달라. 민생·민주·미래·평화의 새봄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 기자